

# EU 전기차 충전표준 승인

ACEA, 전기차 충전시스템 표준화 합의하고 세부 권고사항 발표



▲ 전기충전식 자동차는 2025년까지 신규 판매의 3~10% 범위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이라 예상된다.

**유** 럽자동차공업협회(ACEA: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전기차 충전시스템 표준화에 합의하여 유럽의 모든 전기차에 공통된 한 가지 형태의 플러그를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ACEA는 규제기관, 하부 기관, 전 세계 경쟁자들이 동일한 표준을 채택하도록 권장한다. Ivan Hodac 사무국장은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일치된 솔루션을 위한 길을 마련한다. 현재 여러 형태의 충전방식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유럽 및 해외 시장의 분열을 야기한다"라고 언급했다.

ACEA가 발표한 주요 합의사항은 플러그의 표준화와 관련이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공공 충전 기반시설과 자동차의 전기주입구 사이의 모든 연결을 포함한 일련의 세부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자동차가 그리드와 통신하고, 전력회사가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 등을 제안한다. 이는 직류 또는 교류를 이용한 급속 및 저속 충전시스템을 모두 다루는 폭넓은 제안이다.

## 범 유럽표준에 합의하여 2017년까지 수행

Mr. Hodac은 "이러한 범 유럽표준에 합의하여 2017년까지 이를 수행하는 것은 유럽의 전기충전식 자동차의 보다 폭넓은 도입을 향한 중요한 단계이다. 또한 표준화 투자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비용을 절감시킨다. 우리는 수준 높은 안전표준을 충족하며 사용하기 쉬운 솔루션을 보장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현재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오늘날 전기차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과 더불어 미래를 위한 전기자동차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휘발유나 디젤엔진 자동차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소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해당사자들은 전기충전식 자동차가 2020~2025년까지 신규 판매의 3~10% 범위로 시장 점유율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S**